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문화신문 4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집행부 공무원 사무인계인수관련

안녕하십니까? 박문수 의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보면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담당관, 과, 동 주민센터의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무인계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인계인수는 같은 규칙 별표에 있는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북구에서는 사무인계인수서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사무인계인수서 작성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사무인계인수서의 적정 작성 여부를 사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서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자료는 지난 2014년 1월 1일과 7월 1일자 인사이동 때 과장/동장/팀장님들께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별 작성상태 현황입니다.

33개 항목에 42가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집행부공무원의 2014년 1월 1일과 7월 1일자 각각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만, 몇몇 직원의 경우 작성할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빠트리거나 또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작성한 경우와 작성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대단히 아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욱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신상발언, 위원회 질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적사항 및 올바른 대안들이 사무인계인수서에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관련 규칙에 작성할 항목

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도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에 본 의원은 사무인계인수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인계인수사항에 구의원 제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사무인계인수사항의 각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와 항목별 서식의 변경,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하루 속히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간 1회 정도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중요 사항 중 하나인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하철승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